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2011년 미국 생명보험, 정체 전망

- 미국의 2011년 생명보험은 개인연금에 다소 성장하겠으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이 정체를 보임에 따라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.
 - LIMRA는 미국의 주요 보험회사(70개)의 CEO를 대상으로 2011년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전망을 설문조사함.
- 개인생명보험은 5%이상 성장하겠다는 의견이 39%에 달한 반면,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59%를 차지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됨.
 - 2010년 개인생명보험은 1~2분기에 각각 10%, 7% 성장하였으나 3분기에는 정체되었는데 이는 미국경기의 둔화세, 고실업률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 - LIMRA는 지수연계형(Indexed Life) 유니버설 등 신상품의 성장세에 힘입어 개인생명보험이 5%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조를 보임.
 - 지수연계형 유니버설은 저금리 환경 하에서 단순 종신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- 단체생명보험은 정체를 보이겠다는 의견이 68%에 달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정체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.
 - CEO들은 경기회복세의 둔화와 고실업률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단체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LIMRA도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전망함.
- 개인연금은 정체를 보이겠다는 의견이 48%를 보인 반면, 5%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겠다는 의견도 47%에 달함으로써 2011년에는 약진할 것으로 예상됨.
 - 개인연금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한 CEO들은 주식시장의 호조세 지속으로 변액연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시점 근접에 따라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 - 그러나 LIMRA는 변액연금이 약진은 예상되나 정액연금은 저금리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.

(Insurance news net, 1/19)